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4>**

‘교상 판석’의 내용과 의미

(718호 이어서) 이렇듯이 잡다한 증생들이 하나의 지구에 모여 사는데 어디는 평화롭고 어디는 시끄러운 까닭은 모두가 자기의 뿌리인 무명에 의해 생긴 세계에서 어떤 자제로 사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려는 것이 이 세계기시설(世界起始說)의 목적이다.

그 잘 산다. 못 산다. 함은 선업과 악업으로 대체되는 말인데 이 선업과 악업에 별업(別業)과 공업(共業)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과보가 같지 않다. 별업이란 제제마다 개별적으로 지은 업으로 개인적인 보를 받는 것이요, 공업이란 같은 업을 지어서 함께 받는 경우나, 국가나 민족 등의 공동체를 말한다.

교상(敎相)이란 부처님께서 긴 세월, 넓

고(苦) 집(集) 멸(滅) 도(道), 사성제(四聖諦)의 법을 설하시니, 증생들이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지라 조금씩 알아듣고 모여들었다. 이를 제이(第二) 아함시(阿含時), 또는 녹원시(鹿苑時)라 한다.

셋째, 부처님께서서는 조금 진리의 수위를 높여서서, 선업(善業)으로 선과(善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면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의 섹제를 조금씩 가미(加味)하셨는데 공질 알아듣기 시작했으니, 이 8년 동안을 제삼(第三) 방등시(方等時)라 한다. 방등(方等)이란, 방(方)은 방정(方正)하고도 광대(廣大)하다는 뜻이요, 등(等)은 같다는 뜻이니, 결국 방하고도 등한 대승(大乘)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같이 갖추어있다는 뜻으로서 증생들이 적응하

천태대사, 부처님 설법 시기와 ‘법화경’ 비유로 설명

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근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설법인 <법화경(法華經)>에서 어느 장자(長者)가 잃었던 아들을 찾는 비유를 다섯 단계로 설하셨다. 이를 토대로 중국 수(隋)나라 때 지자대사(智者大師, 538~597)께서 부처님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이 다섯 단계로 나눈 뒤, 이 비유에 맞추어 판석(判釋)하시니, 이로부터 교상(敎相)을 판석(判釋)하는 학풍이 생겼다. 이를 천태(天台)의 오교(五敎)라고도 하고, 오시교(五時敎)라고 한다. 먼저 오시교의 교상을 소개하고 다음에 궁자의 오사비유와 대조해 본다.

첫째,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깨달으시니, 일체가 오직 마음에서 생기는지라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더 구할 것이 없음을 아시고 외치시기를 “일체 증생이 모두 본래 부처니라”는 내용의 <화엄경>을 설하시니, 모두가 못 믿을 말씀이라고 놀라 도 망친다. 이는 부처님 성도직후 삼칠일(三七日) 동안에 있었던 일로써 이를 제일(第一) 화엄시(華嚴時)라 한다.

둘째, 부처님께서서는 어쩔 수 없이 낮은 동네, 즉 녹야원으로 가셔서 12년 동안 선악인과(善惡因果)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기 시작한 시기라는 뜻이다.

넷째, 증생들이 방등교(方等敎)의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소승을 버리고 대승을 취하려하거나 그 취하려는 생각이 도리어 집착이 된다. 그럼으로 다시 그 집착을 끊어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시니, 이것이 곧 다음의 반야시(般若時)이다. 반야학(般若學)을 공사상(空思想)이라고도 하니, 공(空)이란 비운다는 뜻으로서 이전에 알던 것뿐 아니라 나는 반야를 아노라 하는 생각까지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반야부에 속하는 경전을 통틀어 반야부라 하고, 유명한 <금강경(金剛經)>이 여기에 속한다. 21년 동안 이 법을 설하시니 이 기간을 넷째 반야시(般若時)라 한다.

다섯째, 부처님께서 반야부를 설하시기 41년간, 제자들의 교학적인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최초의 <화엄경>은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으니 예로 치고, 소승교 방등교 반야교를 통해 상중하(上中下) 삼근(三根)의 증생이 모두 의지할 곳을 찾았다. 그러나 아직은 유재분처(猶在本處)가 흠이 있었다. 유재분처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불선사 조실**

광덕 스님이 번역한 ‘무문관’ ... 간결한 해설로 ‘禪味’ 극대화

‘문 없는 문’ 들어가는 길은 어디?

5조 훤인 선사로부터 의발(衣鉢)을 받은 날 밤, 6조 혜능 선사는 인연 있는 땅을 찾아 남으로 떠난다. 다음날 혜능이 달마이래로 이어져 온 밥을 받아 떠난 것을 안 대중들은 혜능을 추격한다. 그 추격의 맨 앞에 선 사람은 명(明) 상좌. 대유령에서 추격을 당한 혜능 선사가 명 상좌에게 한 법문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이다. 이 법문 아래 명 상좌는 깨우쳤고 혜능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의 공안(公案)이 형성되는 순간이다.

‘불사선 불사악(不思善不思惡).’ 이 화두를 두고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 선사는 “육조는 가히 급한 곳에 손을 찢고 또한 노파심이 간절하다. 마치 신선한 여지(荔枝)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내어 입에 넣어주어 다만 삼키게만 한 것 같구나”라고 평했다. 또 “그림 수도 없고 그림도 안 되고 찬양으로도 못 미치니 부질없는 고생은 그만두어라/ 본래면목은 감출 곳이 없으니/ 세계가 허물어질 때 도저는 변치 않는다”고 송을 붙였다.

1700 공안, 간화선의 화두는 많기도 하다. 그러나 그 많은 화두가 모두 돌이 아니라 하나다. 수행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제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변질스럽게 1700가지나 되는 화두가 나온 것이다. 무문 혜개 선사가 이 많은 화두 가운데서 후학을



광덕 스님.

지도하기 위해 자주 써 먹은 화두 48가지를 묶어 놓고 그 이름을 ‘무문관(無門關)’이라 했다. 깨달음에 이르는 ‘문 없는 문’을 가는 도리를 밝혔다는 것이다. 책의 구조는 공안의 예를 제시하고 거기에 평을 하고 송을 붙이는 형식이다.

<무문관>은 송(宋)나라 중기 이후 선사들에게 애독서가 됐다. 어록의 반열에서 빠지지 않는 <무문관>의 힘은 무엇일까? 무문 혜개 선사의 친절한 해설과 활달하게 펼쳐 보이는 지침의 힘일 것이다.

‘불광법회’를 꾸려 도심포교와 역경불사를 주도했던 광덕 스님이 번역한 <무문관>의 생명도 친절함에 있다. 번잡스럽거나 지나치게 행뫼기된 느낌의 용어들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시대의 언어로 1000년 중국 선사의 어감을 살려 놓은 송씨는 증생에 대한 깊은 자비심이 아니라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원 작자인 무문혜개의 낙처를 포장하지 않고 보여주려는 것이 광덕 스님의 번역 제1원칙이었다면, 독자는 ‘문 없는 문’을 들어가겠다는 ‘육심’을 버리는 것이 <무문관>을 읽는 제1원칙이 아닐까? (불광출판사 1만2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재미로운 불교 문화·동화

아담법석 여래네 집

스튜디오 돌기획(서울마포 퍼넬)1만원

이것은 상대방을 썰렁하거나 놀고 먹으면서 거들먹대는 사람 취급할 때 하는 말이다. 일종의 욕이기도 하다. 그런데 ‘건달’이란 말의 뜻은?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나무가 지리는 물고기

김혜리 글 그림(사계절 퍼넬)9800원

물고기 등에서 나무가 자란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나 절에서 늘 보는 목탁은 물고기 등에서 자란 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역시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목탁을 만들게 된 유래를 동화로 재구성했다. 출판사의 ‘우리문화 그림책’ 시리즈에 목어 이야기가 들어 간 것이다. “나를 꼭 닮은 목어를 그림책으로 만들게 되어 무척 기쁘다”는 작가의 판화는 선이 굵고 역동적이다.



“야 이 건달 같은 놈아.” 애나 어른이나 불교를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서 쓰는 용어에 친근감을 가진다면 불자로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 하는 것이다. <아담법석 여래네 집>은 자주 접하게 되는 108가지의 불교 용어를 재미있는 생활 에피소드를 통해 풀이해 주는 만화책이다.

구석구석 찾아낸 서울의 숨은 역사 이야기

권영택 글, 김진 그림 책값은 아이 퍼넬1만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숨은 이야기를 남기고 간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흥미롭다.

마른내골, 탄천, 오금동, 명륜동 등등 지명에도 역사의 향기는 묻어 있다. 만화와 사진을 적절히 삽입하여 서울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이 책은 서울 편이 3권으로 나왔고 조만간 경기 남부와 북부 편 각1권씩이 나올 예정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미음의 숲
4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5	인과경	현담	선
6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7	이별로 키태수위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실과 영혼의 비밀	대승불교강우회	양우
9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10	만화 백유경	김정영 글, 그림	솔바람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지혜로 풀어 쓴 불교판 이솝 우화

불교TV 오심 스님의 명쾌하고 재미있는 백유경 해설!

백유경 이야기

오심 스님 지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

백유경의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세상이다. 책 속의 어리석은 주인공들은 내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엄숙하고 진중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 반해 이 경전은 잘못된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해학과 유머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과 ‘혹시 나는 주인공들처럼 어리석은 것을 행한 적이 없나?’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나도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아반성(自我反省)을 하게 한다. 해학과 배꼽 잡는 위트가 살아 있는 이 책을 통해 출가자나 세속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수를 웃는 가운데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값13,500원 | 4도 칼라 400쪽